

P065

벼 고아미2호의 발아 및 초기생육

양창인* · 양원하 · 최돈향 · 노석원 · 전원태 · 한희석 · 이병석 · 구연충 · 이충현
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

Germination & Early Stage Growth of Goami 2 (*Oryza sativa* L.)

Chang-Ihn Yang*, Won-Ha Yang, Don-Hyang Choi, Sug-Won Roh, Weon-Tai Jeon, Hee-Suk Han,
Byeng-Seok Lee, Yeon-Chung Ku, and Chung-Hyun Lee
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

연구목적

고아미2호는 밥쌀용 벼의 배유성분구조와 달리 섬유소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파종 후 발아 및 초기생육형질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 특성을 구명하고자 함.

재료 및 방법

□시험재료

- 발아시험 : 고아미2호, 흑진주벼, 화성벼, 일품벼, 새추청벼
- 육묘시험 : 고아미2호

□실험방법

○발아시험

- 발아온도 30, 25, 20, 15℃ 항온, 광/암조건 : 14h/10h
- petri-dish에 필터페이퍼를 깔고 온도처리별 품종당 40립씩 3반복 파종
- 발아율조사시기 : 파종후 7일까지 매일조사

○육묘시험

- 파종량 : 100g/산파상자
- 출아조건 : 32℃ 암조건 48시간
- 육묘온도 : 주야 25℃항온

연구 결과

- 온도처리에 의한 고아미2호의 발아율 변화를 보면 15℃ 저온에서는 일품벼, 흑진주벼, 설향찰벼 등과 같이 발아율이 10%이하였으며 20℃처리를 지나서부터는 흑진주벼와 발아율이 비슷하였고 그 외의 품종들보다는 낮은 편이었음
- 발아된 종자의 평균발아일수는 전반적으로 저온(15℃)에서 길어져 6일 이상 지나서 발아가 되었고 고온에서는 흑진주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발아가 이루어졌고 고아미2호와 흑진주는 전처리에서 기타품종에 비해서 평균발아일수가 길었음
- 육묘경과에 따른 초기생육을 보면 비교적 높은온도(25℃)에서 생육이되었으나 파종후 10일 지나서 동진벼와 초장에서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였음.

*Corresponding author: Tel : 031) 290-6863 E-mail : yci@rda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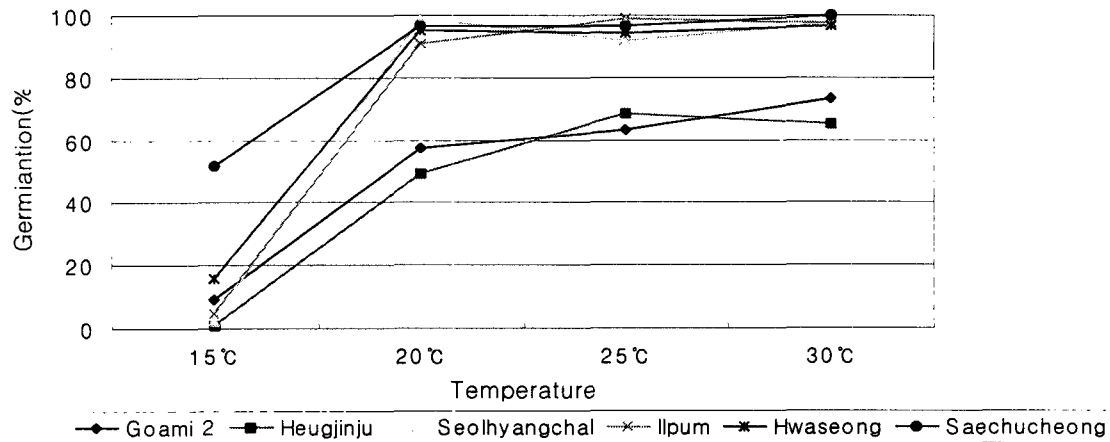


Fig. 1. Difference of germination percentage by temperature treatment of rice varieties.

Table 1. Average germination days by temperature treatment of rice varieties.

Temp.	Goami2	Heugjinju	Seolhyangchal	Ilpum	Hwaseong	Saechucheong
15°C	6.1	6.0	6.3	7.0	6.9	6.7
20°C	5.1	5.5	4.6	4.1	4.1	3.9
25°C	3.7	4.2	3.8	3.6	3.4	3.4
30°C	2.6	3.6	2.2	2.6	2.2	2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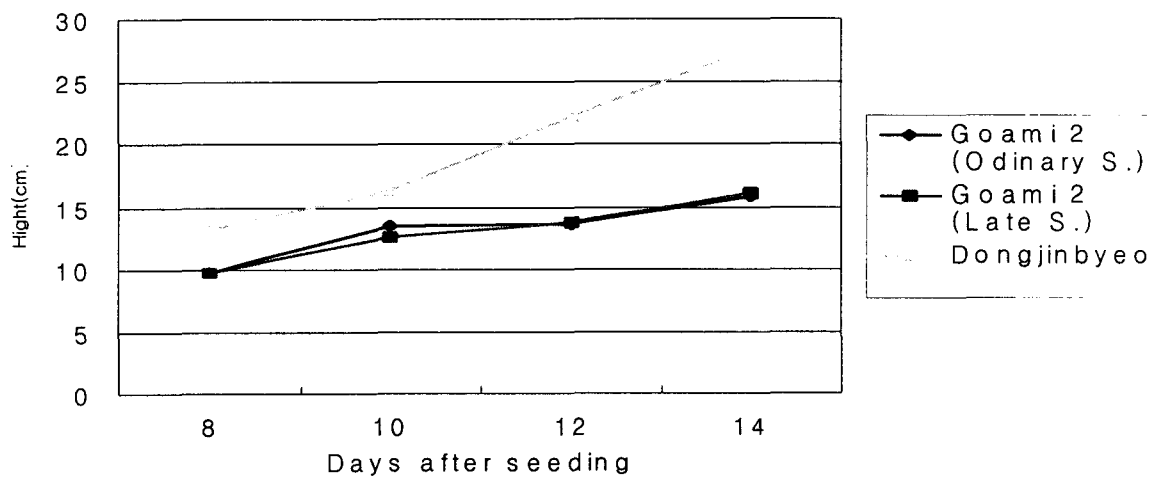


Fig. 2. Increase of plant height according to days after seeding in Goami 2.